

닭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부정 유통 방지 닭고기 유통감시단 공식 출범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닭고기 판매업소나 음식점에서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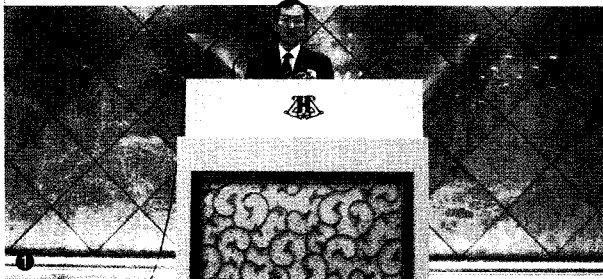
본회는 닭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닭고기 유통감시단을 구성, 지난 5월 27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닭고기 유통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본회 서성배 회장과 닭고기 유통감시원 50여명을 비롯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허윤진 원장·이상혁 충남지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배상호 본부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 유동준 회장, 한국중축개량협회 조병대 회장, 낙농진흥회 강명구 회장,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축산경제신문 김기운 회장, (주)하림 이문용 사장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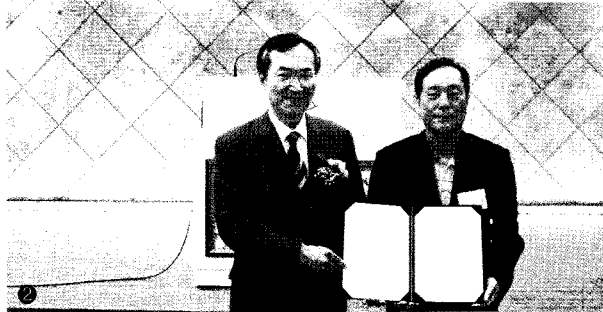
닭고기 유통감시단 출범식

■ 일시 : 2009년 5월 27일(수) 15:00 ■ 주최 : (사)한국계육협회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닭고기 유통감시단 출범식

■ 일시 : 2009년 5월 27일(수) 15:00 ■ 주최 : (사)한국계육협회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성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많은 물량의 닭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국내산 닭고기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 닭고기업체의 현실”이라며 “이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고기를 공급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 및 닭고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닭고기 유통감시단을 출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수입축산물이 마치 국내산인양 포장돼 소비자를 우롱하고 생산자를 울리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야겠지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계육협회가 닭고기 유통감시단을 출범시키게 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허윤진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닭고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육계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닭고기 유통감시단이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품질관리원에서는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본회 서성배 회장은 총 83명의 닭고기 유통감시단 대표로 전라남도 나주시 은색농장 이부규 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유통감시 활동

- ① 본회 서성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감시단 출범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했다.
- ② 닭고기 유통감시단 대표로 은색농장 이부규 사장이 서성배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 ③ (주)올품 지방사업부 장택진 과장의 선창에 따라 유통감시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④ 내빈들도 결의문 낭독에 동참했다(좌로부터 김기윤 회장, 강명구 회장, 이문용 사장, 배상호 본부장, 허윤진 원장, 이승호 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허윤진 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순호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비쁜 일정으로 인해 조금 늦게 참석하신 유동준 회장(좌)과 조병대 회장(가운데)

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주)올품 지방사업부 장택진 과장의 선창에 따라 유통감시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희태 서기관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강의와 (주)하림 이문용 사장의 '계육산업의 중기 비전'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앞으로 3년 동안 닭고기 유통감시원들은 닭고기 원산지의 허위표시와 미표시,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부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총 83명의 유통감시원… 분기별 1회 이상 감시활동 펼쳐

닭고기 유통감시단은 닭고기 원산지의 허위표시, 미표시 및 부정 유통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함은 물론 육계 계약사육농가를 보호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고자 출범하게 되었다.

유통감시단은 본회 각 회원사별로 농가 1명과 임직원 1명 등 2인1조로 구성되는데, 현재 10개 회원사의 소속 농가와 임직원 등 총 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감시원들은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 등 12개 시·도의 닭고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감시활동을 벌이게 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평상시에도 유통감시원은 수시로 닭고기 판매업소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닭고기 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업소를 적발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포상금은 협회 회원사 소속 계약사육농가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본회는 현재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50%가 넘는 배달용 닭고기의 포장지에는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배달용 포장지에도 원산지가 표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정착화에 앞장 설 것이다. 

결 의 문

- 우리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닭고기와 경쟁하고 있으며, 향후 한·미 FTA, 한·EU FTA 등 진전에 따라 닭고기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 특히 돌발적인 국제곡물가격의 급등과 원유가 상승, 환율의 등락 및 질병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견디어내고 있다.
- 다행히도 음식점에 대한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닭고기 유통감시단 일동은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수입산 닭고기가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에 앞장섬으로써 사육농가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닭고기 원산지의 허위표시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 우리는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부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 ▶ 우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닭고기 생산 유통에도 앞장선다.

2009년 5월 27일

(사)한국계육협회 닭고기 유통감시단 일동



1



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희태 서기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강의를 했다.

2 (주)하림 이문용 사장은 '계육산업의 경기 비전'에 대한 강의를 했다.

3 유통감시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